

부모공동양육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 간의 관계*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among Co-Parenting,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Preschoolers' Anxiety and Hyperactivity

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 교수 최 미 경**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 수 도 현 심***

연구교수 김 민 정

조 교수 신 나 나

Dept. of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Duksung Women's Univ.

Assistant Professor : Choi, Mi-Kyung

Dep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Professor : Doh, Hyun-Sim

Research Professor : Kim, Min-Jung

Assistant Professor : Shin, Nana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co-parenting,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preschoolers' anxiety and hyperactivity with a sample of 155 mothers with 3 to 4 year old children (83 boys and 72 girls) living in Seoul. They completed a questionnaire on co-parenting,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preschoolers' anxiety and hyperactivity.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means of correlations and regressions. Co-parenting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reschoolers' anxiety and hyperactivity but affectionate, integrated co-parenting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preschoolers' anxiety and hyperactivity. Maternal stress of parental suffering, dysfunctional interaction, and difficult temperament were positively related to preschoolers' anxiety and hyperactivity. Conflicting co-parenting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maternal stress of parental suffering, but affectionate and integrated co-parenting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maternal stress of parental suffering and difficult temperament. Furthermore, maternal parenting stres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parenting and preschoolers' anxiety and hyperactivity. Especially, maternal stress of parental suffering tended to play a perfectly mediating role between conflicting and integrated co-parenting and preschoolers' anxiety, between conflicting co-parenting and preschoolers' hyperactivity. Maternal stress of difficult temperament tended to play a perfectly mediating role between integrated co-parenting and preschoolers' anxiety and between conflicting co-parenting and preschoolers' hyperactivity. These results clearly indicate that maternal parenting stress plays a crucial role in the levels of preschoolers' anxiety and hyperactivity.

▲주요어(Key Words) : 부모공동양육(co-parenting),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maternal parenting stress),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 (preschoolers' anxiety and hyperactivity)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 기술부 인문사회연구
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
었음(NRF-2010-330-C00001).

** 주 저 자 : 최미경 (E-mail : dmkchoi@duksung.ac.kr)

*** 교신저자 : 도현심 (E-mail : simdoh@ewha.ac.kr)

I. 서론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 가운데에 10~20%는 정서 및 행동문제를 나타내는 데, 이들 가운데에 20%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만이 정신보건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Kim et al., 2008). 그러나, 아동들은 성인과 달리 신체, 심리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하며, 아동기에 경험하는 신체, 심리적 문제는 아동의 발달과업 수행에 어려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후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 관심과 중재의 노력이 요구된다. 대개 아동에게 나타나는 문제행동은 크게 내면화, 외현화 문제로 구분되며(Achenbach, 1991), 내면화 문제는 소극적이고 사회적으로 내재화되어 과잉통제된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울, 불안, 위축을 비롯하여 신체증상, 주의집중문제 등이 포함된다. 반면, 외현화 문제는 감정이나 행동의 적절한 억제가 결여되어 과소 통제된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잉행동, 공격성, 비행 등의 증상 등을 뜻한다(Achenbach, 1991).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들 가운데에서 가장 흔한 증상으로 널리 알려진 불안은, 여러 상황 내에서 경험하는 걱정, 근심, 두려움 및 공포와 같은 말로 특징지을 수 있는 불쾌한 정서를 뜻한다(Bae, 2012). 일시적인 불안은 대부분 정상발달의 일부로 간주되었지만, 불안의 경험을 자주할수록 아동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2). 실제로 아동기의 불안은 학교나 교우관계, 그리고 자유활동 등에 대한 회피 및 만성 긴장상태, 근심, 걱정에서부터 심한 장애를 나타내는 것까지 기능상의 심각한 문제와 관련이 있었으며(Cha, 2007), 아동기의 불안이 청소년 및 성인기까지 이어진다는 심각성이 보고되었다(Cartwright et al., 2004). 그러나 아동기의 정상적 혹은 비정상적 불안을 구분하는 연구 및 유아기 아동의 불안을 주제로 한 연구는 극히 드물게 보고되었다. 많은 문제행동이 그렇듯이 초기 중재가 이후의 개입보다 시간이나 비용 등 여러 가지 점에서 효과적 이므로, 불안장애로까지 진행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불안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외현화 문제행동들 가운데 하나인 과잉행동은 가족 관계나 교우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Garralda & Bailey, 1988), 내재화 문제들보다 더 많은 훈육 등의 중재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잉행동의 대표적 특성의 하나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는 아동기의 대표적인 문제행동으로, 이러한 문제를 가진 아동은 성장하며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또래 집단과의 대인관계 형성에도 문제가 생기기 쉬우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기 쉬웠다(Seo, 2000). 따라서 학령기 이전에 나타나는 과잉행동의 특성을 파악하여

조기 개입을 통한 중재의 노력이 이루어질 때, 이후의 발달 과업의 성취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동의 과잉행동과 관련된 연구는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과잉행동의 표출이 시작되는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과잉행동 표출은 또래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유아의 정서, 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과잉행동에 관해 조사하였다.

아동의 불안, 과잉행동과 관련하여 주로 연구 되어온 변인은 아동의 개인특성 변인 및 아동의 가장 밀접한 환경인 가정환경 관련 변인이다. 가정환경 변인들 가운데, 부부가 자녀를 양육할 때 서로의 역할을 지지하며 협력과 조화로 자녀와 상호작용하는가 하는 정도를 뜻하는 부모공동양육(co-parenting)은 자녀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McHale, Rao, & Krasnow, 2000). 실제로, 부부가 자녀 양육 시 배우자의 관여를 가치 있게 여기고, 양육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며, 서로 의사소통이 잘될 때 부모공동양육은 잘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자녀의 안정적인 정서발달에도 영향을 미쳤으며(Park, 2012), 협력적인 부모공동양육은 자녀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향상시켰다(Abidin & Brunner, 1995). 또한, 부모의 양육일치도와 결합도가 낮을 때 유아기 아동의 불안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Kim, Choi, Jeong, & Lee, 2012), 가족의 지지와 조화수준이 낮고 적대적-경쟁적 부모공동양육을 보일 때 자녀의 정서적 불안감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McHale & Rasmussen, 1998).

한편, 부부간의 일치도가 적고 서로가 갈등적인 관계를 가진 부모를 둔 자녀는 우울, 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 뿐만 아니라 과잉행동, 공격성 등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나타내었다(Shoppes-Sullivan, Magelsdorf, & Frosch, 2001). 이러한 결과를 통해볼 때, 부모공동양육은 자녀의 불안이나 과잉행동과 관련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유아의 발달특성 상 학령기의 아동보다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부모공동양육과 유아의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행동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의 부모공동양육과 자녀의 불안 및 과잉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부모공동양육 이외에도,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요구들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적 반응인 양육스트레스(Deater-Deckard, 1998)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으며, 실제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불안 및 과잉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기 불안과 관련된 부모-가족 요인으로 꼽혔으며, 자녀의 적응적인 발달을 저해하였다(Anderson, 2007). 또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의 불안 및 사회적 부적응과 관련되었고 (Abidin, 1995), 아동의 공격성, 과잉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nderson, 2007). 실제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아동의 불안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Lee, 2011). 한편, 아동의 내면화·외현화 행동문제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의 과잉행동이 심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았다(Kim, Gang, & Youn, 2005). 4~12세 자녀를 둔 정상아와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을 지닌 아동의 부모 양육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 부모의 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높았다(Kim et al., 2011).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외의 연구에서도 자녀의 높은 외현화 문제행동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켰으며(Mash & Johnston, 1983; Donenberg & Baker, 1993), 과잉행동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집단의 경우 정상아 집단의 부모 보다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나타냈다(Baker et al., 2003; Mori et al., 2009). 즉,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에서 볼 때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불안 및 과잉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아의 신체, 심리 발달과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형성에 결정적 시기로 볼 수 있는 생애초기 5년간 유아기 아동의 불안 및 과잉행동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Abidin, 1995) 및 아동기 문제행동들은 이미 2세에서 5세 사이에 지속적, 안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점(Rose, Rose, & Feldman, 1989)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이밖에, 부모공동양육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배우자와 협조적인 관계는 양육스트레스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변인이 되었으며, 반대로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자녀 양육에 대한 참여 및 지지가 적어지기 쉽고 어머니의 양육부담의 비중은 늘어나며 자녀 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1994). 즉,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에 대한 다양한 대처양식을 제공하며 스트레스의 손상효과를 약화시키므로 (Crnic & Greenberg, 1990), 배우자의 지지는 양육관련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0~2세까지의 영아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일치도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가 서로 협력하며 양육하는 태도가 적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졌다(Min, 2010). 이밖에 배우자인 남편의 양육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낮아졌다는 연구(Cha & Sin, 2005) 및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을 경우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어머니의 스트레스 발생 빈도와 강도가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Galinsky, 1988; Kim & Lee, 2005; Lee & Min, 2007; Lee, 2011)도 이를 뒷받침한다. 즉, 배우자의 지지가 가족이나 동료, 교육시설과 같은 사회적 지지보다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보다 더 효과적(Hu, 2006)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부부간에 서로 협조하거나 지지하며 양육하는 부모공동양육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외 연구의 경우 직접적으로 부모공동양육을 주제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드물며, 부모의 양육방식이 결정되기 시작하는 유아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공동양육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부모공동양육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공동양육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각각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모공동양육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는 부모공동양육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 등의 변인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모공동양육과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매개적 역할을 가정케 한다. 이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지만, 부모공동양육에 포함된 개념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자녀의 정서, 행동문제 간의 관계를 통해 이를 살펴본 연구들은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한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적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높였으며, 이는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을 야기하였다(Kim et al., 2012). 다시 말해, 아버지의 양육참여(Lee, 2003)나 지지(Abidin, 1992; Kim & Lee, 2005)는 자녀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주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켰으며(Lu, Choi, & Lee, 199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영향력은 자녀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쳤다(Lee & Mun, 2012). 이를 통해 볼 때, 협력적이지 않은 부모공동양육은 유아기 아동의 불안 및 과잉행동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Kim et al., 2012), 이와 동시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높이고(Kim & Lee, 2005), 가중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궁극적으로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아동의 문제행동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몇몇 연구에 그치고 있으며, 부부가 본격적으로 혼육을 하며 양육을 시작하는 유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모공동양육과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 간의 관계에서 차지하는 매개적 역할을 탐색해 보았다.

종합해 보면, 부부간 서로의 지지와 협조 하에 양육을 하는 지의 정도를 뜻하는 부모공동양육과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인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과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리라 가정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공동양육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와 동시에 부모공동양육과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매개적 역할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공동양육은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과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과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3> 부모공동양육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공동양육과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만 3~4세 유아($M = 46.87$ 개월, $SD = 4.64$ 개월)와 그들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수행중인 단기종단연구에 참가중인 155명의 어머니들이 참가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유

아의 성별은 남아가 53.5%(83명), 여아가 46.5%(72명)이었다. 유아의 출생순위는 첫째가 54.2%(84명), 둘째가 41.3%(64명), 셋째 이상이 4.5%(7명)이었다. 부모의 연령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35~39세(아버지 72명, 46.5%; 어머니 73명, 47.1%)가 가장 많았고, 30~34세(아버지 37명, 23.9%; 어머니 58명, 37.4%)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49.0%(76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전문대 졸업 및 대학교 중퇴가 21.3%(33명)이었으며, 어머니는 대학교 졸업이 41.9%(65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문대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가 25.8%(40명)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이 37.4%(58명)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 및 고위관리직이 16.1%(25명), 자영업 및 일반판매직이 14.2%(22명)의 순이었다. 어머니의 경우는 전업주부가 36.8%(57명)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이 29.0%(45명), 전문직 및 고위관리직이 11.0%(17명)이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부모공동양육,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 구성되었다. 모든 척도는 어머니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으로 응답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변인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1) 부모공동양육

부모공동양육은 McHale(2000)이 개발한 23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Kim(2001)이 수정·변안한 부모공동양육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Kim(2001)의 척도는 갈등적 부모공동양육(5문항), 애정적 부모공동양육(4문항), 지지적 부모공동양육(3문항), 그리고 통합적 부모공동양육(3문항)의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를 들면, 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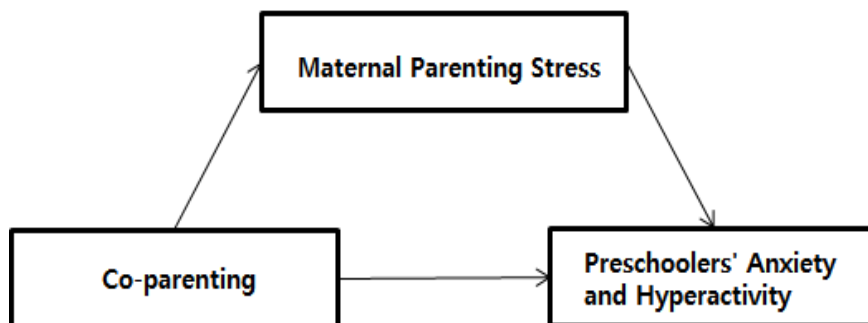


Figure 1. The Mediating Effect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on the Relations between Co-Parenting and Preschoolers' Anxiety and Hyperactivity

등적 부모공동양육은 ‘아이 앞에서 아이가 했던 일에 대해 남편과 언쟁을 한다.’, ‘아이 앞에서 아이와는 무관한 문제들에 대해 남편과 언쟁을 한다.’ 등으로, 애정적 부모공동양육은 ‘아이에게 신체적인 애정 표현을 한다.’, ‘남편에게 아이에 대한 긍정적인 말을 한다.’ 등이, 지지적 부모공동양육은 ‘아이가 장난을 심하게 칠 때 남편에게 “당신이 어떻게 좀 해 봐요”라고 말한다.’, ‘남편이 간섭하여 아이를 야단칠 때 나는 곁에서 조용히 바라보고만 있다.’ 등이, 통합적 부모공동양육은 ‘아이에게 가족 단위에 대한 말을 한다.’, ‘아이로 하여금 아빠를 떠올리게 하는 말을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갈등적, 애정적, 지지적, 그리고 통합적 부모공동양육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81, .71, .69, .80이었다.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Abidin(1990)의 부모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PSI))를 수정·번안하여 사용한 Kim(200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양육스트레스의 측정도구는 부모의 고통요인(12문항), 부모-자녀 역기능적인 상호작용(12문항),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12문항) 등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를 들면, 부모의 고통요인에는 ‘나는 종종 내가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나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얽매어 있는 느낌이 든다.’, 등이, 부모-자녀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에는 ‘우리 아이는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일들을 거의 하지 않는다.’, ‘우리 아이는 기대했던 것보다 나에게 훨씬 덜 웃는다.’, 등이,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에는 ‘우리 아이는 대체로 아침에 불쾌한 기분으로 일어난다.’, ‘우리 아이는 대부분의 아이들보다 좀 더 자주 울거나 까다롭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의 고통요인, 부모-자녀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85, .82, .81이었다.

3) 유아의 불안·과잉행동

유아의 불안·과잉행동은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Korean Personality Rating Scale for Children: KPRC)의 하위척도인 ‘불안 척도’(15문항)와 ‘과잉행동 척도’(19문항)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KPRC는 만 3~17세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타당도가 검증된 표준화된 도구로(Kim et al., 2007),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발달의 모든 영역을 총 177문항으로 다양하게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먼저 유아의 불안척도는 자연현상이나 동물, 혹은 관계에서의 두려움이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자연현상이나 동물에 대한 공포, 대인관계에서의 불안, 걱정, 당황 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어둠을 무서워한다.’, ‘하찮은 것들을 두려워할 때가 있다.’, ‘평소에 낯선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한다.’ 등이 있다. 다음으로 과잉행동은 과다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들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부주의로 인하여 실수를 한다.’, ‘잘 잊어버린다.’ 등을 들 수 있다. 불안과 과잉행동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각각 .81과 .89였다.

3. 조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조사는 2010년 12월에서 2011년 12월까지 서울시 및 수도권 소재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시설장과 대상아동 어머니들의 동의하에 실시되었다. 본 조사는 만 3~4세 유아($M = 46.87$ 개월)와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2년간에 걸쳐 실시하는 단기종단연구의 첫 번째 조사로서 참여에 동의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 참가한 155명의 어머니들이 연구가 진행된 대학교에 방문하여 직접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각각 산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부모의 공동양육,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불안·과잉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모공동양육과 아동의 불안·과잉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 모델을 기초로 단순회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Sobel 테스트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회귀식의 기본과정인 다중공선성의 위반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와 공차한계(Tolerance)를 확인한 결과, 각각 10이하(1.02~1.45)와 0.1 이상(0.69~0.98)으로 나타나 회귀분석 실시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Berry & Feldman, 1985).

III. 연구 결과

1. 부모공동양육과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 간의 관계

부모공동양육과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갈등적, 애정적, 지지적, 그리고 통합적 부모공동양육 등 네 가지 하위요인 중 지지적 부모공동양육과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 간의 관계를 제외하고, 모두 유아의 불안(갈등적 부모공동양육: $r = .32, p < .001$, 애정적 부모공동양육: $r = -.33, p < .001$, 통합적 부모공동양육: $r = -.25, p$

<.01) 및 과잉행동(갈등적 부모공동양육: $r = .24, p < .01$, 애정적 부모공동양육 $r = -.31, p < .001$, 통합적 부모공동양육: $r = -.30, p < .001$)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1> 참조). 즉, 양육 시 부부 간의 갈등이 많고, 부부 서로의 양육이나 자녀에게 애정표현 등의 긍정적인 표현이 적으며, 자녀에게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긍정적인 표현 등을 적게 할수록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은 높았다.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 간의 관계

<Table 2>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유아의 불안(부모의 고통: $r = .37, p < .001$, 역기능적 상호작용: $r = .32, p < .001$, 까다로운

기질: $r = .50, p < .001$) 및 과잉행동(부모의 고통: $r = .40, p < .001$, 역기능적 상호작용: $r = .16, p < .05$, 까다로운 기질: $r = .51, p < .001$)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여기며, 부모-자녀 간에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이 많고, 자녀의 기질을 까다롭게 여길수록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은 높았다.

3. 부모공동양육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

<Table 3>과 같이 부모공동양육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공동양육의 모든 하위변인들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하위변인들 가운데 부모의 고통(갈등적 부모공동양육: $r = .56, p < .001$, 애정적 부모공동양육: $r = -.35, p < .001$, 지지적 부모공동양육: $r = -.26, p < .001$, 통합적 부모공동양육: $r = -.32, p < .001$) 및 까다로

Table 1. Correlations between Co-Parenting and Preschoolers' Anxiety and Hyperactivity

(N=155)

Co-parenting	Anxiety	Hyperactivity
Conflicting	.32***	.24**
Affectionate	-.33***	-.31***
Supportive	-.05	-.15
Integrated	-.25**	-.30***

** $p < .01$, *** $p < .001$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Preschoolers' Anxiety and Hyperactivity

(N=155)

Maternal parenting stress	Anxiety	Hyperactivity
Parental suffering	.37***	.40***
Dysfunctional interaction	.32***	.16*
Difficult temperament	.50***	.51***

* $p < .05$, *** $p < .001$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Co-Parenting and Maternal Parenting Stress

(N=155)

Co-parenting	Maternal parenting stress		
	Parental suffering	Dysfunctional interaction	Difficult temperament
Conflicting	.56***	.27***	.39***
Affectionate	-.35***	-.28***	-.35***
Supportive	-.26***	-.15	-.20*
Integrated	-.32***	-.15	-.24**

* $p < .05$, ** $p < .01$, *** $p < .001$

운 기질(갈등적 부모공동양육: $r = .39, p < .001$, 애정적 부모공동양육: $r = -.35, p < .001$, 지지적 부모공동양육: $r = -.20, p < .05$, 통합적 부모공동양육: $r = -.24, p < .01$)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양육스트레스의 또 다른 하위요인인 역기능적 상호작용과의 관계에서는 부모공동양육 가운데 갈등적 부모공동양육($r = .27, p < .001$), 애정적 부모공동양육($r = -.28, p < .001$)만이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양육시 부부간의 갈등이 많고, 배우자의 양육에 대해 지지하는 면이 적고, 자녀에게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 말하거나 긍정적인 표현 등을 적게 할수록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여기며, 자녀의 기질을 까다롭다고 지각하였다. 또한, 부부간의 갈등이 많고 부부 서로의 양육이나 자녀에게 애정표현 등의 긍정적인 표현이 적을 때 어머니는 자녀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그러나 지지적 부모공동양육과 통합적인 부모공동양육은 역기능적 상호작용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4. 부모공동양육과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매개적 역할

이상에서와 같이, 부모공동양육,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 각각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몇몇 하위요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 변인들은 서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Table 1>, <Table 2>, <Table 3> 참조). 이는 Baron and Kenny(1986)가 제안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매개적 역할을 예측하게 하는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공동양육과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매개적 역할을 탐색해 보기위해, 첫 번째 중다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인인 부모공동양육이 매개변인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각각 살펴보고, 두 번째 중다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인인 부모공동양육이 종속변인인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각각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다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인인 부모공동양육과 매개변인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후, 부모공동양육이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이 감소하거나(부분매개) 사라지고(완전매개), 매개변인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종속변인인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종속변인인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 각각에 대해, 매개변인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로 완전매개와 부분매개 순으로 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세 가지 하위요인 가운데 역기능적 상호작용은 매개적 역할이 발견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1) 부모공동양육과 유아의 불안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매개적 역할

먼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부모의 고통의 매개적 역할과 관련하여, <Table 4>와 같이 첫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부모의 고통)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모공동양육의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갈등적 부모공동양육($\beta = .56, p < .001$), 애

Table 4. The Mediating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Parental Suffer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Parenting and Preschoolers' Anxiety (N=155)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Maternal parenting stress (Parental suffering)		Preschoolers' Anxiety		Preschoolers' Anxiety	
	b	β	b	β	b	β
<u>Co-parenting</u>						
Conflicting	.45	.56***	5.93	.32***	2.83	.15
Affectionate	-.34	-.35***	-7.16	-.33***	-4.8	-.22**
Integrated	-.30	-.32***	-5.43	-.25**	-7.69	-.14
<u>Maternal parenting stress</u>					7.69	.34***
<u>Parental suffering</u>						
R^2	.17		.9		.18	
F	14.21***		9.21***		16.97***	

** $p < .01$, *** $p < .001$

정적 부모공동양육($\beta = -.35, p < .001$) 그리고 통합적 부모공동양육($\beta = -.32, p < .001$)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부모의 고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부모의 공동양육이 종속변인인 유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갈등적 부모공동양육($\beta = .32, p < .001$), 애정적 부모공동양육($\beta = -.33, p < .001$)과 통합적 부모공동양육($\beta = -.25, p < .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으로 부모의 공동양육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부모의 고통)를 투입했을 때, 유아의 불안에 미치는 갈등적 및 통합적 부모공동양육의 유의한 영향력은 부모의 고통이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아(갈등적 부모공동양육: $\beta = .32, p < .001 \rightarrow n. s.$ / 통합적 부모공동양육: $\beta = -.25, p < .01 \rightarrow n. s.$), 부모의 고통은 갈등적 및 통합적 부모공동양육과 유아의 불안과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즉, 부모가 갈등적 부모공동양육을 많이 하고, 통합적 부모공동양육을 적게 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부모의 고통)가 높아지고 나아가 유아의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고통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Sobel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각각 $3.16(p < .001)$, $-3.05(p < .01)$ 로 유의하였다. 또한 유아의 불안에 미치는 애정적 부모공동양육의 유의한 영향력은 부모의 고통이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 유의도가 낮아졌다(애정적 부모공동양육: $\beta = -.33, p < .001 \rightarrow \beta = -.22, p < .01$). 즉, 부모의 고통은 애정적 부모공동양육과 유아의 불안과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부모 고통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Sobel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2.47(p < .01)$ 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지지적

부모공동양육과 유아의 불안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고통은 매개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또 다른 하위요인인 까다로운 기질의 매개적 역할과 관련하여, <Table 5>와 같이 첫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까다로운 기질)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모공동양육의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갈등적 부모공동양육($\beta = .39, p < .001$), 애정적 부모공동양육($\beta = -.35, p < .001$) 그리고 통합적 부모공동양육($\beta = -.24, p < .001$)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까다로운 기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부모의 공동양육이 종속변인인 유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갈등적 부모공동양육($\beta = .32, p < .001$), 애정적 부모공동양육($\beta = -.33, p < .001$)과 통합적 부모공동양육($\beta = -.25, p < .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으로 부모의 공동양육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까다로운 기질)를 투입했을 때, 유아의 불안에 미치는 통합적 부모공동양육의 유의한 영향력은 까다로운 기질이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아(통합적 부모공동양육: $\beta = -.25, p < .01 \rightarrow n. s.$), 까다로운 기질은 통합적 부모공동양육과 유아의 불안과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즉, 부모가 통합적 부모공동양육을 적게 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까다로운 기질)가 높아지고 나아가 유아의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까다로운 기질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Sobel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2.93(p < .01)$ 로 유의하였다. 또한, 유아의 불안에 미치는 갈등적 및 애정적 부모공동양육의 유의한 영향력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Table 5. The Mediating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Difficult Tempera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Parenting and Preschoolers' Anxiety (N=155)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Maternal parenting stress (Difficult temperament)		Preschoolers' Anxiety		Preschoolers' Anxiety	
	b	β	b	β	b	β
Co-parenting						
Conflicting	.30	.39***	5.93	.32***	2.75	.15*
Affectionate	-.33	-.35***	-7.16	-.33***	-3.85	-.18*
Integrated	-.23	-.24**	-5.43	-.25**	-3.02	-.14
Maternal parenting stress					10.74	.47***
Difficult temperament						
R^2	.11		.09		.27	
F	11.93***		9.21***		28.79***	

* $p < .05$, ** $p < .01$, *** $p < .001$

하위변인인 까다로운 기질이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 유의도가 낮아졌다(갈등적 부모공동양육: $\beta = .32, p < .001 \rightarrow \beta = .15, p < .05$ / 애정적 부모공동양육: $\beta = -.33, p < .001 \rightarrow \beta = -.18, p < .05$). 즉, 까다로운 기질은 갈등적 및 애정적 부모공동양육과 유아의 불안과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까다로운 기질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Sobel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각각 $3.87(p < .001)$, $2.14(p < .05)$ 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지지적 부모공동양육과 유아의 불안 간의 관계에서 까다로운 기질은 매개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

2) 부모공동양육과 유아의 과잉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매개적 역할

먼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부모의 고통의 매개적 역할과 관련하여, <Table 6>과 같이 첫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부모의 고통)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모공동양육의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갈등적 부모공동양육($\beta = .56, p < .001$), 애정적 부모공동양육($\beta = -.35, p < .001$) 그리고 통합적 부모공동양육($\beta = -.32, p < .001$)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부모의 고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부모의 공동양육이 종속변인인 유아의 과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갈등적 부모공동양육($\beta = .24, p < .001$), 애정적 부모공동양육($\beta = -.31, p < .001$)과 통합적 부모공동양육($\beta = -.29, p < .0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으로 부모의 공동양육과 어머니 양육스트

레스(부모의 고통)를 투입했을 때, 유아의 과잉행동에 미치는 갈등적 부모공동양육의 유의한 영향력은 부모의 고통이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아(갈등적 부모공동양육: $\beta = .24, p < .001 \rightarrow n. s.$), 부모의 고통은 갈등적 부모공동양육과 유아의 과잉행동과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즉, 부모가 갈등적 부모공동양육을 많이 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부모의 고통)가 높아지고 나아가 유아의 과잉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고통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Sobel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3.97(p < .001)$ 로 유의하였다. 또한 유아의 과잉행동에 미치는 애정적 및 통합적 부모공동양육의 유의한 영향력은 부모의 고통이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 유의도가 낮아졌다(애정적 부모공동양육: $\beta = -.31, p < .001 \rightarrow \beta = -.19, p < .05$ / 통합적 부모공동양육: $\beta = -.29, p < .001 \rightarrow \beta = -.18, p < .05$). 즉, 부모의 고통은 애정적 및 통합적 부모공동양육과 유아의 과잉행동과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부모 고통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Sobel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각각 $-3.28(p < .001)$, $-3.15(p < .001)$ 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지지적 부모공동양육과 유아의 과잉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고통은 매개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Table 7>과 같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또 다른 하위요인인 까다로운 기질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까다로운 기질)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모공동양육의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갈등적 부모공동양육

Table 6. The Mediating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Parental Suffer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Parenting and Preschoolers' Hyperactivity (N=155)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Maternal parenting stress (Parental suffering)		Preschoolers' hyperactivity		Preschoolers' hyperactivity	
	b	β	b	β	b	β
<u>Co-parenting</u>						
Conflicting	.45	.56***	4.71	.24***	.33	.02
Affectionate	-.34	-.35***	-7.29	-.31***	-4.4	-.19*
Integrated	-.30	-.32***	-6.97	-.29***	-4.32	-.18*
<u>Maternal parenting stress</u>					8.77	.36***
<u>Parental suffering</u>						
R^2	.17		.08		.19	
F	14.21***		7.71***		18.04***	

* $p < .05$, *** $p < .001$

Table 7. The Mediating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Difficult Tempera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Parenting and Preschoolers' Hyperactivity (N=155)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Maternal parenting stress (Difficult temperament)		Preschoolers' hyperactivity		Preschoolers' hyperactivity	
	b	β	b	β	b	β
<u>Co-parenting</u>						
Conflicting	.31	.39***	4.71	.24***	.91	.05
Affectionate	-.33	-.35***	-7.29	-.31***	-3.45	-.15*
Integrated	-.23	-.24**	-6.97	-.29***	-4.31	-.18**
<u>Maternal parenting stress</u>					11.85	.47***
<u>Difficult temperament</u>						
R^2	.11		.08		.28	
F	11.93***		7.71***		29.81***	

* $p < .05$, ** $p < .01$, *** $p < .001$

($\beta = .39, p < .001$), 애정적 부모공동양육($\beta = -.35, p < .001$) 그리고 통합적 부모공동양육($\beta = -.24, p < .001$)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까다로운 기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부모의 공동양육이 종속변인인 유아의 과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갈등적 부모공동양육($\beta = .24, p < .001$), 애정적 부모공동양육($\beta = -.31, p < .001$)과 통합적 부모공동양육($\beta = -.29, p < .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으로 부모의 공동양육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까다로운 기질)를 투입했을 때, 유아의 과잉행동에 미치는 갈등적 부모공동양육의 유의한 영향력은 까다로운 기질이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아(갈등적 부모공동양육: $\beta = .24, p < .001 \rightarrow n. s.$), 까다로운 기질은 갈등적 부모공동양육과 유아의 과잉행동과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즉, 부모가 갈등적 부모공동양육을 많이 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까다로운 기질)가 높아지고 나아가 유아의 과잉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까다로운 기질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Sobel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4.03($p < .001$)로 유의하였다. 또한, 유아의 과잉행동에 미치는 애정적 및 통합적 부모공동양육의 유의한 영향력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하위변인인 까다로운 기질이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 유의도가 낮아졌다(애정적 부모공동양육: $\beta = -.31, p < .001 \rightarrow \beta = -.15, p < .05$ / 통합적 부모공동양육: $\beta = -.29, p < .001 \rightarrow \beta = -.18, p < .01$). 즉, 까다로운 기질은 애정적 및 통합적 부모공동양육과 유아의 과잉행동과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까다로운 기질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Sobel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각각 -3.77($p < .001$), -2.95($p < .01$)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지지적 부모공동양육과 유아의 과잉행동 간의 관계에서 까다로운 기질은 매개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3~4세 유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공동양육,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부모공동양육과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공동양육과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갈등적 부모공동양육이 높고, 애정적 및 통합적 부모공동양육이 낮을수록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이 높았다. 즉, 양육 시 부부간의 갈등이 많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애정표현 등의 긍정적인 표현이 적으며, 자녀에게 배우자가 함께 없을 때에도 배우자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긍정적인 표현 등을 적게 할수록 아동의 불안이나 과잉행동은 높았다. 이는 협력적인 부모공동양육은 자녀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키며(Abidin & Brunner, 1995), 부부가 자녀 양육 시 배우자의 관여를 가지 있게 여기고, 양육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며, 서로 의사소통이 잘될 때 자녀의 안정적인 정서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Park, 2012)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일치도와 결합도가 낮을 때 유아기 아동의 불안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Lee, 2007), 적대적-경쟁

적 부모공동양육을 보일 때 자녀의 정서적 불안감이 커졌다는 연구결과(McHale & Rasmussen, 1998)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긴 유아기 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의 부부 간에 일치가 적고 서로가 갈등적인 관계를 나타낼 때, 아동은 우울, 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 뿐 아니라 과잉행동, 공격성 등의 외현화 문제행동(Limgahl & Malik, 1999; Anderson, 2007)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주장과 더불어, 아동기의 불안 등의 문제행동이 청소년 및 성인기까지 이어진다는 연구(Cartwright et al., 2004)에 근거할 때, 발달 초기이며 급속한 성장을 나타내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 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 간에 유의한 정적관계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여기며, 부모-자녀 간에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이 많고, 자녀의 기질을 까다롭게 여길수록 유아의 불안이나 과잉행동이 모두 높았다. 이것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불안과 관련된 부모-가족 요인이며(Pianta, Hgeland, & Stroufe, 1990; Lee, 2011), 아동의 공격성, 과잉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를 야기하였다는 연구결과(Anderson, 2007)와 일치한다. 또한, 유아의 과잉행동이 심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며(Kim, Gang, & Youn, 2005), 과잉행동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의 경우 정상아의 부모 보다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나타냈다는 연구결과(Baker et al., 2003; Mori et al., 2009)와도 일맥상통한다. 즉, 부모-자녀관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성이 있으므로,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유아의 불안이나 과잉행동과 같은 문제행동 역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Palmerus, 1999; Mori et al., 2009)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유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유아의 특성과 발달에 대한 이해 및 양육법을 내용으로 한 부모교육을 사회, 교육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시급함을 나타낸다.

한편, 부모공동양육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양육 시 부부 간의 갈등이 많고, 배우자의 양육행동에 대해 협조적이거나 지지하는 면이 적고, 자녀에게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긍정적인 표현 등을 적게 할수록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여기며, 자녀의 기질을 까다롭다고 지각하였다. 또한, 부부 간의 갈등이 많고 부부 서로의 양육이나 자녀에게 애정표현 등의 긍정적인 표현이 적을 때 어머니는 자녀와의 역기능적 상

호작용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이것은 배우자와 협조적인 관계는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변인이며(Park, 1994; Lee, 2012), 남편의 양육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낮아졌고(Cha, 2005; Min, 2010), 배우자의 지지가 사회적 지지보다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보다 더 효과적이었다는 연구(Hu, 2006)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어머니가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배우자의 자녀 양육에 대한 참여 및 지지가 적어지기 쉽고(Park, 1994), 결과적으로 어머니 양육부담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의 가장 밀접한 환경이며 그 중요성이 지대한 어머니가 배우자와 함께 자녀를 양육할 때 서로의 역할을 지지하거나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지의 정도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달라진다는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부담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며, 동시에 자녀를 지도, 훈육하기 시작하는 유아기 부모의 부부 서로 간의 이해 및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강조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Abidin, 1995; Anderson, 2007), 부모공동양육과도 관계가 있다는 결과들(Anthony et al., 2005) 및 부모공동양육과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 간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들(Margolin, Gordis, & John, 2001)에 근거하여 부모공동양육과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 지를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하위변인인 부모의 고통은 갈등적 및 통합적 부모공동양육과 유아의 불안과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적 역할을 하였으며, 애정적 부모공동양육과 유아의 불안과의 관계에서는 부분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즉, 여러 상황 내에서 경험하는 걱정, 근심, 두려움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정서인 불안은, 갈등적, 통합적 그리고 애정적 부모공동양육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보다는 부모가 자녀양육을 고통스럽게 여기는 양육스트레스를 통해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양육 시 부부 간에 갈등이 많은 갈등적 부모공동양육과 배우자가 함께 없을 때에도 상대 부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긍정적 표현을 하는 통합적 부모공동양육 및 자녀와 배우자에게 애정 표현이나 긍정적 표현을 하는 애정적 부모공동양육은 유아의 불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갈등적, 통합적 및 애정적 부모공동양육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하위변인인 부모의 고통을 동시에 고려할 때, 부모의 고통만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거나 부모공동양육의 영향력은 약화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하위변인인 까다로운 기질은 통합적 부모공동양육과 유아의 불안과의 관계에서는 완전

매개적 역할을 하였으며, 갈등적 및 애정적 부모공동양육과 유아의 불안과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즉, 유아의 불안은 통합적, 갈등적, 애정적 부모공동양육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보다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하위 변인인 자녀를 까다롭다고 지각하는 까다로운 기질을 통해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다시 말해, 배우자인 남편의 부재 시에도 자녀에게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긍정적 표현을 하는 통합적 부모공동양육, 자녀 양육 시 부부간의 갈등이 많은 갈등적 부모공동양육과 배우자와 자녀에게 애정표현 등의 긍정적 표현을 하는 애정적 부모공동양육이 유아의 불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통합적, 갈등적 그리고 애정적 부모공동양육과 자녀를 까다롭다고 여기는 양육스트레스를 동시에 고려할 때, 부모공동양육의 영향력이 감소하거나 사라졌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부모공동양육,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유아의 정서, 행동문제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적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이는 영아의 정서적 문제행동을 야기하였다는 연구(Kim et al., 2012)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부부가 서로 협력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을 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높아질 것이며(Park, 199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 때 유아의 불안이 심해진다는 연구(Abidin, 1995; Anderson, 2007)와도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부부가 서로 조화롭고 협력적이며 애정적인 양육을 할 때 어머니는 양육시 고통을 적게 느끼며 자녀를 덜 까다롭다고 지각하여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는 유아의 불안이 약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하위변인인 부모의 고통은 갈등적 부모공동양육과 아동의 과잉행동과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적 역할을 하였으며, 애정적 및 통합적 부모공동양육과 아동의 과잉행동과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즉, 유아의 과잉행동은 갈등적 및 애정적, 통합적 부모공동양육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보다는 부모의 고통을 통해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갈등적, 애정적 그리고 통합적 부모공동양육이 유아의 과잉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갈등적, 애정적 그리고 통합적 부모공동양육과 부모의 고통을 동시에 고려할 때, 부모공동양육의 영향력이 감소되거나 사라졌다.

또한, 자녀를 까다롭다고 지각하며 스트레스를 느끼는 까다로운 기질은 갈등적 부모공동양육과 유아의 과잉행동과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적 역할을 하였으며, 애정적 및 통합적 부모공동양육과 유아의 과잉행동과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즉, 유아의 과잉행동은 갈등적 및 애정적, 통합적 부모공동양육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보다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하위변인인 자녀를 까다롭다고 지각

하는 까다로운 기질을 통해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다시 말해, 갈등적 부모공동양육, 애정적 그리고 통합적 부모공동양육은 유아의 과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지만, 갈등적, 애정적 및 통합적 부모공동양육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하위변인인 까다로운 기질을 동시에 고려할 때, 까다로운 기질만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거나 부모공동양육의 영향력은 약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가 서로 협력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Park, 1994), 아버지가 양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Lee, 2003), 그리고 부부가 서로 배우자의 양육을 지지할 때(Abidin, 1992; Kim & Lee, 200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낮아질 것이며, 양육스트레스가 적을 때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애정적인 보살핌을 하게 되고(Crawford & Manassis, 2001),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나타내면 유아의 과잉행동이 심해지며(Abidin, 1995; Anderson, 2007), 발달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기대를 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Abidin, 1995)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영향력은 자녀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Lee & Mun, 2012), 자녀를 돌보고 가르치는 부모의 양육행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위의 결과와 함께 고려해볼 때, 부부가 자녀를 양육할 때 서로 의견충돌이 잦고 갈등적이거나, 애정적 표현이 적으며 부채중인 배우자에 대한 표현을 하지 않거나 긍정적 표현을 하지 않을 때, 부모의 고통이나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과 같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높아지며 더 나아가 유아의 불안이나 과잉행동이 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를 통해 부모의 양육방식이 결정되기 시작하는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부모공동양육은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유아의 가장 밀접한 환경인 어머니의 양육부담감과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표출하는 불안 및 과잉행동 간의 밀접한 관계를 확인케 한다. 이와 동시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덜하지만, 부모공동양육 역시 궁극적으로 유아의 불안이나 과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은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유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양육스트레스를 야기하는 부부 간의 비협력적, 갈등적 태도를 감소시키고 유아의 신체,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단계적, 체계적

인 실시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의 어머니가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유아의 불안이나 과잉행동 등의 모든 변인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수집하기에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관찰법이나 면접법 등의 다양한 조사방법을 이용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공동양육 등을 어머니가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어머니 뿐 만 아니라 아버지가 경험하는 부모공동양육을 측정함으로써 어머니와 아버지가 경험하는 지각의 차이를 함께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부부 간의 인식의 차이 확인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 협력하며 돕는 바람직한 부모역할 정립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불안이나 과잉행동의 관계가 양방향적이라는 문헌고찰을 고려해 볼 때, 추후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불안이나 과잉행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 보다 폭넓은 연구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문제행동이 표출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 출현한 문제행동이 이후의 성장기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아기의 문제행동의 예방과 신체, 심리적 건강 향상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차후 유아기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동을 둘러싼 환경으로서 부모공동양육과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의 대표적인 불안이나 과잉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부모공동양육,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 등 세 가지 변인을 모두 살펴본 연구가 드문 상황에서,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변인들 간의 영향력을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유아가 경험하는 불안이나 과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부모공동양육보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더욱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함으로써 유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신체,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중재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REFERENCE

Abidin, R. R.(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PSI/SF)*.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Abidin, R. R.(1992).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4)*, 298-301.

Abidin, R. R.(1995). *Parenting Stress Index(PSI) manual* (3r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 Inc.

Abidin, R. & Brunner, J.(1995). Development of a parenting alliance inventor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4(1)*, 31-40.

Achenabchh, T. M.(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Profile. *Burlington, 101*, 213-232.

Anderson, N. E.(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stress level and anxiety ratings of their children*. The University of Arizona.

Anthony, L. G., Anthony, B. J., Glanville, D. N., Naiman, D. Q., Waanders, C., & Shaffer, S.(2005).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ur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ur problems in the classroom.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2)*, 133-154.

Baker, B. L., McIntyre, L. L., Blacher, J., Crnic, K., Edelbrock, C., & Low, C. (2003). Pre-schoolchildren with and without developmental delay: behaviour problems and parenting stress over time.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47*, 217-230.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Bae, J.(2012). Effects of stable attachment formation in early childhood upon mental health in childhood.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Support, 7(1)*, 241-261.

Bek, Y.(2007). *The effect stress and guilt of mothers in raising children have in their attitude of raisi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Berry, W. D. & Feldman, S.(1985). *Multiple regression in*

- practice: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 Cartwright, H., Roberts, P., Fothergill, & Harrington, S. (2004). Systematic review of the efficacy of cognitive behavior therapies for childhood and adolescent anxiety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43(4), 421-436.
- Cha, J.(2007).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attitude, children's anxiety,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somatics sympto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Cha, S.(2005). *Parenting Stress of Employed Mothers with You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 Crnic, K. A. & Greenberg, M. I.(1990). Maternal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Deater-Deckard, K.(1998). Parenting stress and child adjustment: Some old hypotheses and new question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5, 314-332.
- Doh, H.(1997). *A study on the relation of the parents' verbal control mode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pro-social think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Donenberg, G. & Baker, B. L.(1993). The impact of young children with externalizing behaviors on their famili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21, 179-198.
- Frankm, S. L., Hole, C. B., Jaconson, S., Justkowski, R., & Huyck, M.(1986). Psychological predictors of parents' sense confidence and control and self-versus child-focused gratific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2(3), 348-355.
- Garralda, M. & Bailey, D.(1988). Child and family factors associated with referral to child psychiatrists. *Br, Journal of Psychiatry* 153, 81-89.
- Gottfried A. W. & Gottfried A. W.(1990).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 Longitudinal research*(pp. 233-268). New York: Plenum.
- Hu, S.(2006). *Factors affecting fostering stress among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uk University. Kyunggi, Korea.
- Hughes, D. & Galinsky, E.(1988). Balancing work and family life: Research and corporate application. In A. E. Gottfried & A. W. Gottfried(Eds.),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 Longitudinal research*(pp. 233-268). N.Y.: Plenum.
- Kim, H., Kang, G., & Yun, Y.(2005). The effect of parental modernity and children's misbehavior on parenting stress of mother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1(1), 147-165.
- Kim, J. & Lee, G. H.(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rearing and mother's child rearing stress.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6(5), 245-261.
- Kim, J., Cho, S., Hong, C., & Hwang, S.(2007). *Korean personality rating scale for children.* Korea Guidance.
- Kim, M., Chung, K., Seo, D., Byung, H., & Lee, M. (2011). The association between stress and child behavior problems in PDD and ADHD.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3), 747-765.
- Kim, M.(2008).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intervention program for aggressive young children: Focus on social skills training program and parent education.* Unpublished doctoral thesis, Ewha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2001). *The correlates of coparenting: Marital quality, mothers' personality, children's tempera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Choi, H., Jeong, K., & Lee, Y.(2012). The effect of mothers' parenting stress on children's social and emotional behaviors according to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care: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6(1), 551-575.
- Kim, S., Jo, S., Im, G., Jung, Y., & Shin, Y.(2008). A preliminary study for the perceived need and use of child mental health services.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7(1), 33-45.
- Kim, W.(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nxiety and preschoolers' anxiety/depression and externalizing behavior - the moderating effect of preschoolers' attachment sec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University, Seoul, Korea.
- Lee, J.(2007). *Effects of marital satisfaction and couple's cohesion, and child-rearing agreement on young children's problem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University, Chungbuk. Korea.
- Lee, L.(2003). *The parent education demands due to the pa-*

- rental attitudes and stresses- Focusing on the parents who have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M.(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arenting accordance and parenting stress*. Unpublished dissertation of University. Kyungi, Korea.
- Lee, M.(2011). *A Study on the effects raising children of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ren*. Unpublished dissertation of Ajou University. Kyungi, Korea.
- Lee, S. & Mun, B.(2012).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 on children's ego-resilience: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stres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5(6), 259-274.
- Lee, S. & Min, H.(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s temperament, father's child-rearing participation, and mother's child-rearing stress.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6(2), 219-225.
- Lee, S.(2003). Fathers of preschool children: Childrearing involvement, husband-wife relationship and growth as a parent. *Korean Journal of Child Development*, 24(3), 97-106.
- Lee, Y.(2011).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of mothers and depression, anxiety, and secure attachment of children*. Unpublished dissertation of Chungnam University, Chungnam, Korea.
- Lee, Y. & Park, K.(2005). The relations between mothers' depression,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Psychotherapy*, 5(2), 39-57.
- Lu, U., Choi, J., & Lee, S.(1998).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f Infant's Mothers.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6(1), 51-61.
- Margolin, G., Gordis, E., & John, R.(2001). Coparenting: A link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parenting in two parent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1), 3-21.
- Mash, E. & Johnston, C.(1983). A comparison of the mother-child interactions of physically abused and non-abused children during play and task situation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2, 337-346.
- McHale, J., Rao, N., & Krasnow, A.(2000). Parental reports of coparenting and observed coparenting behavior during the toddler period. *Internationa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 220-236.
- McHale, J. & Rasmussen, J.(1998). Coparental and family ground-level dynamics during infancy: Early family precursors of child and family functioning during preschoo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0(1), 39-59.
- Min, S.(2010).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to parenting*. Unpublished dissertation of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 Mori, K., Ujiie, T., Smith, A., & Howlin, P.(2009). Parental stress associated with caring for children with Asperger's syndrome or autism. *Pediatrics international*, 51, 364-370.
- Park, H.(1994). *A study on parental stress based on the parenting of you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I.(2012). *Relationship among marital conflicts, coparenting and a child's emotional regul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Rose, S., Rose, S., & Feldman, J.(1989). Stability of behavior problems in very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and Psychopathology*, 1, 5-20.
- Schoppe-Sullivan, S. J., Mangelsdorf, S. C., Frosch, C. A., & McHale, J. L. (2004). Associations between coparenting and marital behavior from Infancy to the preschool yea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8(1), 14-207.
- Seo, E.(2000). The program for improvement of child's mental health. *The Korean Academy of Mental Health Social Work*, 327-338.

접수일 : 2013년 01월 15일
 심사일 : 2013년 02월 04일
 게재확정일 : 2013년 03월 03일